

## 모든 인간 생명은 거룩하고 침해될 수 없다

—교황 성하가 생명 수호 대회중에 행한 연설문—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특별히 나는 이 모임에 참석하신 미켈레 조르다노 추기경과 많은 대주교들과 주교들에게 인사 전합니다. 나는 이 훌륭한 참가자들에게 아주 뜻깊은 말을 발언하신 우고 폴렛티 추기경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후원한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명 수호운동의 회원들, 휘콜라레 회원들 및 네오-카테키즘의 회원들(Neo-catechumens)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 ‘인간 생명 수호’ 대회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훌륭히 감행한 뜻깊은 증거입니다. 이 대회는 이탈리아 주교들이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 반포 20주년 및 사목적 훈시「그리스도교 공동체와 근원적인 인간 생명의 수락」 반포 10주년을 맞이하여 결성되기를 위한 ‘생명수호 문화를 위한 국내 협의회’의 한 중대한 단계입니다.

나는 이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함에 있어서 추진된 과업에 대한 나의 심심한 만족과 찬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 대회는 생명의 가치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분석하고 또 이듬해들을 위한 몇 가지 실천적선택을 대중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생명을 두려워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대한 상황 판단을 호리하게 하는 수많은 어두운 조짐들과 함께 생명을 수호하려는 수많은 밝은 징조들도 생생히 나타나고 있음은 의심 없는 사실입니다. 온갖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중요시되어야

’1989년 4월 16일 일요일에 교황 성하는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후원한 생명 수호 대회의 참가자들에게 연설하였다.

할 것은 ‘정신’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겪지 않으시는 살아 계신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부단히 고정시키면서 이 대체될 수 없는 생명 봉사를 재발견하고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모든 활동을 고무시키고 지탱해 주어야 할 정신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2. 예수께서는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 모든 단계와 조건의 인간생활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자연적 성장을 받아들여셨고, 그 운명 즉 탄생과 삶과 죽음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갈라 4,4).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었습니다(루가 1,31 이하 참조). 그분의 모친은 그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고 그를 양육하고 돌보셨으며 보호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어린이처럼 연약하고 가련하며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생명의 첫 순간부터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찬미의 제물로 당신 몸을 바치셨습니다(히브 10, 5참조). 그분이 아직 동정녀의 태중에 감추어 계셨을 때에 이미 구원의 결실을 가져오셨습니다. 즉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만나는 동안 그분은 선구자 요한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탄생 신비의 찬양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 안에서 가장 진실되고 뜻깊게 표명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요한 16,21).

이와 같이 어머니의 태중 안에서 시작된,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인간 생명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 안에서 그 절대적 가치의 가장 믿을 만한 인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똑같은 찬양을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분은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단순성과 겸손의 모범으로(마태 18, 3-4: 루가 9,48),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의 모범(마르 10,15)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뱀뱀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마태 18,6).

3.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수락하심으로써 그 조건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일의 노고를 겪으셨고 유배의 쓰라림을 감수하셨으며 배고픔과 갈증과 두려움과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루가 사가의 보도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마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굶지 않고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다. 그러는 동안 땀방울 같은 땀이 뚝뚝 흘러 땅에 떨어졌다”(루가 22,44).

분명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유일 무이한 개인적 체험을 통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인간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 고통에 대한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들을 행하실 때 보여 주신 그분의 동정심은 영혼에게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하느님의 자비 넘치는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서의 한 비유에서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간호해 주었다”(루가 10, 33-34).

#### ‘죽음의 문화’에 대항하는 새 복음 선교

4. 예수께서는 또한 우리처럼 인간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자유 안에서 죽음을 직면

하셨고 하느님으로 부터 소외당하는 극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 영혼의 밑바닥까지 뒤흔든 고통을 감수하고 또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태 27, 46)하고 절규하게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부의 손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심으로써 평온을 누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성체성사 중에 신비롭지만 실제적 방식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요한 6,51) “바쳐진 그분의 몸”과 “흘려진 그분의 피”의 봉헌을 통하여 계속되는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봉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이 “지나감”(pascha), 죽을 생명에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넘어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인간 생명은, 가장 멀리 당한 사람이나 소외당한 사람이나 배척당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태어나지 아니한 태아, 어린이, 병자, 고난을 겪는 자, 노인,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생명 못지 않게 수태 순간부터 시작하여 그 자연적 종말에 이르기까지 동등하게 기록하며 절대 침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교회는 인간 생명을 경시하고 배척하는 사회 상황 안에서 처음부터 생명과 관련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질서를 결정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도교 작품인 「디다케」에는 명백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낙태를 통하여 태중의 결실을 죽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태어난 아기를 해롭게 해서도 아니 됩니다”(디다케 V. 2).

아테나고라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변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낙태하기 위해 약품을 사용하는 여인들을 살인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의 살해를 그리고 모친의 태중에서 아직 살고 있는 태아의 살해조차 단죄합니다. “태중의 어린 생명은 벌써 하느님의 섭리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35항)라고 그는 기술합니다.

교회의 초창기와 현 시기가 서로 대비되고 있습

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오늘날의 인류는 범위의 의미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광범위한 인간생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격의 존엄성과 인생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 고조는 펍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무능력자, 노인,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수많은 전문화된 봉사들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민감성도 높이 살 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을 경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는 수많은 방식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이기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생명의 침해될 수 없는 가치를 믿지 않음으로써 생명의 절대적 주인이며 의심 없는 조정자로 자처하는 사회적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주 시민법 자체가 앞장서서 생명의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든 적절히 그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문화'라 불리워 온 불행한 현상의 번성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생명 권리의 선포를 위한 광범위한 영역을 마련해 주는 '새로운 복음 선교'가 시급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 인간은 존중받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6. 시민 사회와 교회의 모든 사람이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에만 그와 같은 광범위한 생명 수호의 과업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대회는 이러한 책임 분야들을 연구해 왔고 또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사회사업가들과 사목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열성과 신뢰를 가지고 계속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 생명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명을 지니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나는 먼저 사랑과 생명의 요람인 가정에 호소합니다. 출산률 감소의 심각한 문제와 관련하여 부부들은 자녀가 하느님으로부터의 축복이라는 것을 재인식해 주어야겠습니다: “자식은 야훼의 선물이다”

요,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금이다”(시편 127, 3). 또한 그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재천명한 진리를 증거해야겠습니다: “참으로 자녀들은 혼인의 고귀한 선물이다”(사목 헌장, 50항).

—나는 다음으로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개인적 및 집단적 도덕 의식의 형성에 협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사회 대중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교육 사업은 항상 생명에 대한 사랑과 봉사가 인간과 그 진정한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공적 또는 사적 영역 안에서 또는 증대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발적 봉사에 불리움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일 각 사람의 선이 효율적으로 옹호되고 촉진되지 않는다면, 조직 사회의 근본 목적인 공동선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각 사람은 기본 권리인 생명 권리로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권리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과 모든 사람의 생명의 보다 인간다운 발전을 위한 경제적·법률적·문화적 조건 그리고 노동 환경과 건강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나는 또한 입법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정치적·사회적 조건들 안에서, 인간의 침해될 수 없는 요구들에 부응되는 입법을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의 안에서만 시민법이 그 위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를 인간화시키는 자기 소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보살피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적 전문 기술과 깊은 인간애로써 연약하고 고난받는 인간 생명에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들은 그 자신의 일이 항상 육체와 불사 불멸한 영혼을 지닌 전인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는 과학자들에게 언제나 인격을 존중하는 탐구와 기술적 적용을 발전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위협을 받게되는 다른 영역 안에서와

〈31면에 계속〉

은 신앙의 실천으로써 받게 되는 현실적인 고통을 순교정신으로 극복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인구 증가 억제 정책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 대우를 우리의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에 견줄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가정이 인간 사회와 교회의 근본임을 깨달아, 가정의 성화와 가정의 권리 현장의 구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구원의 풍요로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89년 5월 8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28면에서)

마찬가지로 중립 입장은 이 한가지 점에 있어서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즉 인간이 존중되지 않으면 노예로 전락되고 맙니다.

7.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생명 특히 가장 가련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생명에 봉사하는 가운데서, 모든 인간 존재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신 하느님의 사랑 자체를 계시하는 증거하

는 자로서 수행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인식과 긍지를 절대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원문 : Holy Father's address to Pro-life Congress, "Every human life is sacred and inviolable", *L' Osservatore Romano*, N.26, 26 June 1989, 6면 번역 : 대구 가톨릭 대학 최영철 신부)\*